



'몽몽'이라는 제목의 낚시꾼 동상.

/여수시 제공

평온함 속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섬

정중동의 섬 여지도

낮고 자그마한 섬이다. 바람 한 점 볼 것 같지 않은 평화로운 분위기다. '정중동'이라 했던가. 평온함 속에 힘 좋은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곳이다.

이 섬을 대표하는 봉장어 다리가 있어 서만은 아닌 듯하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며 바다를 생업으로 삼은 섬사람들의 약삭같은 기운이 아기가기함 속에 묻어 있기 때문이리라.

◇ 자급자족의 섬

여지도는 여수에선 여자만, 순천에선 순천만이라 부르는 여자만의 중심에 위치한 섬이다. 화양면의 섬달천에서 4.2km, 여수에서 해로로 44.5km 떨어져 있다. 여수 섬달천선착장에서 송여자도선착장까지 도선으로 20분 거리다.

여지도는 송여자도와 대여자도 2개의 섬을 일컫는다. 두 섬을 합쳐도 해안선은 7km를 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송여자도 정상이 해발 48m이다. 두 섬을 연결하는 '봉장어다리'가 유명하다.

여지도는 섬을 중심으로 주위에 둘러 있는 도시의 배열이 공중에서 보면 너여(汝)자 지형이고 육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자(自)자를 써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문을 해석해서는 의미를 붙일 수 없는 이름이다.

한편에선 '넘자섬'을 한자로 바꾸며 이름 지어졌다고도 한다. '넘자'란 말은 '넘'은 넘는다는 뜻이며 '자'는 산을 말하는 고어로 섬의 높이가 낮아 파도가 산을 넘는다는 의미로 여지도로 불렀다 한다. 낮은 산으로 이뤄진 지형과도 맞아 떨어진다.

여지도는 평균 바다 수심이 3~5m 정도로 비교적 낮고 순천과 벌교 방향에서 흘러드는 물로 인해 좋은 갯벌과 염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패류들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이 조성돼 피조개의 주산지였으나 지금은 새꼬막 양식을 주로 하고 낙지와 감성돔이 많이 난다.

◇ 그림 같은 돌레길

여지도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 그래서인지 조용하고 정적이다. 송여자도는 소나무가 많아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송여자도 선착장 끝에 '여지도 유래

좌우·위아래 요동치는 봉장어다리 유명세 외계행성 온 듯 울퉁불퉁 기반암 모습 눈길 자연미 넘치는 해안돌레길 목재테크 매력



평온한 여지도 전경.

/여수시 제공



여지도의 검은모래 해변.

/여수시 제공



좌우·위아래로 꿈틀거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봉장어다리.

/여수시 제공

와 돌레길' 안내판이 있다. 등산로는 여기서 우측으로 30m 가면 시작된다.

공장 숲이다. 등산로는 정비가 잘되어 있고 울창한 소나무와 사스피레나무 그늘이 좋다. 팔각정은 운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전망도 좋다.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돈복등대 너머로 달천도, 운두도, 진지도 등이 멀리 보인다. 산길은 잔디밭처럼 편안하게 이어진다.

커다란 의자와 안내도가 있는 곳이 정상인 '큰등'이다. 산이러기보다 평범한 구릉의 느낌이다. 소나무 사이로 무수히 많은 섬이 눈에 들어온다. 목판화처럼 정지된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일품이다.

남부 해안지방에서만 자라는 비파나무 단지를 지난다. 농작물이 있는 밭과 바다가 교차하는 풍경을 지나면 다시 숲으로 든다. 울창한 숲은 잘 가꾸어진 바닷가 정원을 걷는 기분이다.

대여자도 해안 돌레길을 걷는다. 자연미 넘치는 대여자도의 숨은 매력이다. 요철이 있는 곳에는 목재테크가 설치돼 있다. 조유희 바다 위에 떠있는 납계도는 한 폭의 정물화다. 구불구불한 해안길은 각도를 달리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벤치를 지나면 송여자도분교다.

1.7km 돌레길은 30분가량이면 충분히지만 여운은 오래 남는다. 폐교된 송여자도분교는 지금은 민박집으로 개조됐다. 돌담장 옆으로 예쁜 백사장이 있다.

◇ 섬의 명물 봉장어다리

송여자도분교에서 100m 정도 더 가면 봉장어다리 입구다. 여지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개통된 '봉장어다리' 덕분이다. 주민들은 지네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지네다리'라고도 부른다.

다리는 맛있는 일차 형태가 아니다. 봉장어가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좌우로 위아래로 요동치는 커다란 봉장어가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다리 위에는 7개의 교량낚시터가 있다. '몽몽'이라는 제목의 낚시꾼 동상이 있을 정도로 낚시명소다. 노래미, 감성돔, 갯장어, 송어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 오밀조밀한 해안 지형

여지도의 매력은 오밀조밀한 해안 풍경에 있다. 해식절벽과 검은모래해변, 검은자갈해변, 공룡알을 촘촘히 박아 놓은 듯한 지형은 지질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봉장어다리를 건너 대여자도로 곧장 직진하면 상갑다. 다리 끝에 있는 우측 해안 테크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200m 길이의 테크 끝부분부터 암반지대다. 곰보뿔처럼 울퉁불퉁한 기반암은 마치 공룡 알집처럼 보인다.

지질은 중성화산암류로 타포니 바위가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다. 집괴암에 박혀 있던 돌조각이 빠져나가고 염분은 주변 암석을 깎아 더 큰 구멍을 만들었다. 벌집처럼 보이는 지형을 타포니라고 한다. 마치 사진 속에 서만 났던 외계행성에 온 듯한 분위기다.

테크길 덕분에 안전하게 절벽지대를 지난다. 철분이 많은 붉은 암괴를 지나자 검은모래해변이다. 수직절벽에는 용출임 하듯 용암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다. 경치 좋은 해수욕장이 3개나 연달아 있다. 수심도 완만하고 물도 투명하다. 30분을 걸으면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는다.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시멘트 포장도로를 만난다.

◇ 꿈 키운 소라초 분교

작은 언덕을 올라서면 공장 대동마을로 이어진다. 지대가 높지 않아 확 트인 느낌은 없다. 10분이면 여자대동교회와 지나고 마을 안쪽 길로 들어선다. 대동마을 포구는 상당히 크다. 바닷가에 있는 학교는 소라초 여자분교다.

학교 담장을 넘어서면 바로 바닷가다. 담벼락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 바다를 접한 학교에서는 파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온다. 아마도 이곳에 다니 학생들은 바다 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며 꿈을 키웠으리라. 학교 너머 해변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샘북남'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보이는 섬이 높이가 8m밖에 되지 않는 납계도이다.

여기에서 송여자도선착장까지 가는 길은 두 갈래다. 시멘트 도로를 따라 걷는 길과 마파지 인근에서 우측 해안길로 드는 것이다. 우측 해안길을 택하면 지루하지 않다. 어디로 가든 봉장어다리로 연결된다.

여지도는 길게 잡아 3시간 남짓이면 곳을 둘러볼 수 있다.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조용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새해 설계를 여지도에서 꾸며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